

# 여고생 치마 벗겨 벌 세우기

## 광주 모 여고 여교사 시험 벌칙...욕설·폭언도

### 학부모 "아이 전학 시키고 교육청 감사 의뢰"

광주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일부 교사가 수업 도중 학생들에게 교복 치마를 벗게 하는 벌칙을 주고, 욕설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광주 C여고 학생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이 학교 1학년 영어 담당 여교사가 수업 시간 도중 족저지침을 본 뒤 성적 나쁜 학생들에게 교복 치마를 벗고 교실을 도는 벌칙을 주고 있다는 것.

이 학교 한 학생은 "친구들 앞에서 교복 치마를 벗고 교실을 돌면서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저는 한번 밖에 벌칙을 받지 않았지만, 다른 친구들은 수차례 걸쳐 이러한 벌칙을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학생도 "아무리 공부를 못한다고 사춘기 소녀들의 치마를 벗기는 게 말이나 되느냐"면서 "선생님께

항의하고 싶었지만, 미움을 받을까봐 꼭 참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사는 "학기초에 족저지침을 봤는데 '0'점이 나온 아이들이 있어 두 차례에 걸쳐 치마를 벗게한 뒤 무릎을 꿇고 있게 했다"면서 "치마를 벗고 교실을 돌게 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며, 요즘은 이마저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학교의 또 다른 여교사는 1학년 인 A양이 꽃무늬가 새겨진 가방을 들고 등교했다는 이유로 가방을 빼앗고,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학부모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학교는 숙녀용 가방과 빨간색 등 화려한 색상이나 꽃무늬 등이 새겨진 가방을 들고 등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A양은 "다음날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가방의 기준은 어디까지 인

가'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를 본 선생님님이 저를 교무실로 부르더니 여러 선생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낮과 밤이 다른 X', '이 잦도 홈페이지에 올려라'라는 등의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은 A양은 결국 부모님과 상의 끝에 전학을 가기로 결정했다.

A양의 어머니는 "아이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 증세를 보여 전학을 결심하게 됐다"면서 "우리 아이가 마지막 피해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 교육청에 감사를 의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학교 교감은 "가방과 관련해서는 해당 교사로부터 폭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치마를 벗기는 벌칙도 학생들을 의욕적으로 지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박진희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캠버스에 활짝 핀 봄** 광주 동강대학 운동장 주변에 백철쭉과 영산홍, 자산홍 등 하얗고 빨강도 연보랏빛을 띤 철쭉들이 만개했다. 철쭉 덩굴 사이에서 쉬는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도 봄 빛으로 물들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전남대 후문 방음벽 15년만에 철거

### 광주시 40억원 들여 '명품 가로' 조성

전남대와 보도 사이를 가로막았던 600여 미터 길이의 전남대 후문 방음벽이 15년 만에 철거되는 등 이 일대를 명품 가로로 조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정비 작업이 올 상반기부터 시작된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공모를 통해 2곳의 컨소시엄으로부터 전남대 후문 거리 조성방안을 접수받았으며, 오는 30일 2개의 안을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최종안을 선정한다.

시는 '고품격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해 기존의 가격인할 방식이 아닌 디자인 업체와 시공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조성 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시는 이 전남대 후문 일대를 전남대와 협의를 거쳐 가로공원으로 꾸미는 한편 가로등, 버스승강장, 자전거 보관대 등 공공시설물을 '미(美)'를 강조하는 디자인 명품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40억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디자인 도시로서의 광주를 대표하는 모범거리를 전남대

후문에 조성할 예정이다"며 "최종 결정된 조성 방안이 그대로 공사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입찰이 아닌 설계·시공 일괄 공모 방식을 택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4일 공공디자인 위원회를 열어 장애인재활전문병원, 첨단 119안전센터, 풍영체육공원 아름다운 화강실, 남강동 주민센터, 광주 상주고, 시청사 옥상녹화조성사업, 총장로 4~5가 특화거리조성사업 등 모두 7개 공공건축물이나 사업에 대한 디자인을 심의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교과부 2차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 전남대 4개 과제 최다 선정

교육과학기술부의 2차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 사업'에 전남대의 4개 과제가 선정되는 등 최종적으로 19개 대학에서 29개 과제가 선정됐다.

교과부는 26일 "전공·학과 신설 지원(유형1)으로 접수된 31개 과제 중 6개(19%)가, 개별 해외학자 초빙 지원(유형2)으로 접수된 108개 과제 중 23개(21%)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2차 WCU사업은 1차 사업에서 선정이 적었던 인문사회 분야와 지방대 과제 중심으로 추진됐다. 대학별로는 전남대가 유형1 과제 1개를 포함해 총 4개 과제로 최다 선정됐으며 경북대·경상대·연세대·영남대·울산과학기술대·이화여대·전북대 등이 각각 2개씩 선정돼 그 뒤를 이었다.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 차상위 계층에 '사랑의 반찬 나누기 운동' 접화

지역 내 차상위 계층에게 반찬을 지원하는 '희망 2009 사랑의 반찬나눔기 운동'이 29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광주시와 광주·전남지역 교회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한 (사)나눔과 기쁨 광주·전남지부가 함께 펼치는 이번 운동으로 지역 내 차상위계층 1천 명은 매주 한 차례씩 반찬을 전달받게 된다.

시청 문화광장에서 열리는 이날 발대식에는 박광대 광주시장, 강성원 (사)나눔과 기쁨 광주·전남지부 대표, 김영진 국회의원 등 1천500여 명이 참석하며, 문화공연과 '나눔미' 선서, 후원금 전달식, 사랑의 반찬나눔 퍼포먼스 등이 열린다.

한편 시는 지역사회공동체모듬회를 통해 후원금 1천만 원을 전달하는 한편, 이날 행사에서 박 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사재를 털어 별도의 후원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45분 해질 19시 15분 달출몰 07시 43분 달沒 23시 04분

**눈부신 아침햇살**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대체로 맑겠다.

도시	구름	조기	기온
광주	구름 조금	7/21°C	
목포	구름 조금	8/19°C	
여수	구름 조금	10/20°C	
완도	구름 조금	8/21°C	
구례	맑은 뒤 흐림	3/22°C	
해남	구름 조금	4/21°C	
장흥	구름 조금	4/22°C	
고흥	구름 조금	5/22°C	
순천	맑은 뒤 흐림	7/21°C	
영광	구름 조금	5/19°C	
진도	구름 조금	6/21°C	
전주	맑은 뒤 흐림	10/20°C	
남원	맑은 뒤 흐림	10/21°C	
옥산도	구름 조금	10/17°C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1.0m	목포 04:21 16:19	09:28 21:29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5m	여수 10:53 23:42	04:57 16:59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날씨	최저/최고
29(수)	☀	7/23
30(목)	☀	8/25
5/1(금)	☀	9/26
2(토)	☀	12/22
3(일)	☁	12/21
4(월)	☀	10/24

## “교사채용비리 솜방망이 처벌”

### 정광학원 前이사장 비난...전교조도 고발 검토

교사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개감사를 청구했던 정광학원 전 이사장이 학교측의 '솜방망이' 징계에 대해 또 한번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정광학원 이정인 전 이사장(법명 천은·대안학교 조계종 원로)은 27일 '진실을 왜곡하지 말라'는 성명을 통해 "비양심적인 인사들이 정광학원을 장악해 불합리하게 교사를 채용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감사를 청구했으나, 오히려 진실이 왜곡되고 있다"면서 "이 시 교육청의 해임요구를 어기고 불법을 저질렀던 장본인들이 학교에 버티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이사장은 또 "본인의 정화지위를 받아들여 시교육청은 6명의 교사채용 비리를 밝혀냈고, 불법을 저지른 장본인들을 해임 조치토록 했다"면서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이 전 이사장

과 이사 간의 의견대립에서 발생했다'는 현 이사장의 발언은 지혜가 부족한 부적절한 말"이라며 반성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정광학원 문제를 현명하게 처리해 많은 정광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소속적인 집단주의를 버리고, 대응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가길 바란다"며 두 교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검찰 고발과 감사청구서 물론 타 사립학교의 인사과정을 타도할 수 집, 발표하는 것을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시 교육청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감사결과에 불응한 정광학원 이사회에 대해 적법한 징계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광학원은 지난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시교육청으로 부터 해임요구된 교장 2명에 대해 '해임' 대신 '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려 신분을 유지토록 했다. /박진희기자 lucky@kwangju.co.kr

**롯데관광 LOTTE TOUR**

1577-3000

광주지사: 062-226-2601

광주서구점 062-383-1133    광주첨단점 062-974-3050

순천점 061-755-7114    목포점 061-244-5882

익산점 063-843-3800    전주롯데점 063-289-2855

군산점 063-444-5500    전주시찰점 063-282-3210

**창립38주년 기념 & 5월 가정의 달 Event**

무안출발 1 나스님 힐링여행 4박5일

HIT 저렴한 가격, 품격높은 프리미엄상품

나스 농수산음식점 상해, 항주, 서당 4일

₩349,000부터 5/6, 13, 20, 27 [단4회]

GS 농수산물 북경, 만리장성, 응경협 4일

₩439,000 → ₩399,000 5/5, 12, 19, 26 6/2, 9, 16, 23, 30

무안출발 2 15일 힐링 힐링여행 4박5일

소풍, 유선장요 없는 ALL포함

북경, 완전일주 4박5일

₩599,000부터 5/5, 12, 19, 26 6/2, 9, 16, 23, 30

북경, 완전일주 5박6일

₩659,000부터 5/5, 12, 19, 26 6/2, 9, 16, 23, 30

**상해, 항주, 삼청산, 황산(醉은천) 5일 799,000**

5/2 [출발화선]

**동남아 인기메스트리 인천출발**

**피타야 방콕 5/5일**

₩589,000 → ₩549,000

**일본 인기메스트리 인천출발**

**일본 4박5일**

₩949,000부터 5/20, 27, 6/3, 10, 17, 24, 31

**유럽 자유 여행 인천**

**대만권 여행 6/6일**

₩3,990,000부터 5/20, 27, 6/3, 10, 17, 24, 31

**일본 힐링여행**

**일본 4박5일**

₩249,000부터 5/5, 12, 19, 26 6/2, 9, 16, 23, 30

**제주도 힐링여행 2박3일**

₩219,000부터 5/5, 12, 19, 26 6/2, 9, 16, 23, 30